

와인을 이용한 데님 염색

최근 이태리 회사 ITV Denim은 와인과 와인에서 나온 파생물로 색감을 낸 신제품의 데님 소재를 선보였다. ITV는 섬유 제조회사로 40년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ITV에 따르면 이 염색법은 천연물을 이용해 넓은 범위의 청색과 갈색의 색상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섬유와 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ITV는 다양한 데님을 만들기 위해 Invista 그리고 Ecoyaa와 함께 파트너를 맺어 산업화, 공정관리, 제품의 잠재적 상업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였다.

새로운 염색법은 전통적으로 쓰였던 합성 인디고 염색을 와인의 파생물로 대체를 한다. 그 결과로 실, 원단, 그리고 가먼트 등에 다양한 범위의 청색의 색상을 염색할 수 있다. ITV는 천연염색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국기업 Ecoyaa로부터 이 기술에 대해 전 세계적인 독점 특허를 획득했다. 이 두 회사의 협력은 ITV가 Wine-tex 브랜드를 토대로 유통과 마케팅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2003년에 Pam Jean Company로 시작한 Ecoyaa는 원래 핸드 프린트된 옷을 전문적으로 만들었지만, 최근 환경친화적인 염색법과 한국의 전통 염색방식으로 데님을 가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ITV Denim의 Barbara Gnutti는 “데님세계의 혁신과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이후로 우리회사는 Ecoyaa가 수행하는 연구의 잠재력과 새로운 영역을 탐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공동작업을 통해 이탈리아에 신제품과 새로운 공정과정을 창출할 상업화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완성시킬 기회라고 생각한다. Wine-tex 기술의 가능한 모든 사용법을 강조할 것이며,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상당

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형적인 ‘Made in Italy’의 특색을 나타낼 것이다.”
고 하였다.

ITV Denim은 최첨단 연구소와 이 분야의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 기술을 이용한 광범위한 상품과 공정을 발달시키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기술, 과정, 그리고 특색을 모두 접목시킨 데님 의복의 런칭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데님산업에 Invista의 Lycra 기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ITV는 Lycra fiber, Lycra T400 fiber, 그리고 Lycra dualFX fabric 기술을 결합한 샘플들도 생산하였다. 그 이유는 이미 입증된 고품질의 재료 및 공정과 새로운 Wine-tex 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ITV Denim은 데님산업 내에서 획기적이며 고품질을 가진 원단을 생산하는 것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Invista는 이런 ITV Denim과 공동작업에 관심을 보였다. Invista의 유럽 마케팅 매니저인 Federica Albiero는 “저희 회사는 ITV와의 협력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염색공정을 통한 데님을 개발하는데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의 초기결과와 더불어 앞으로 ITV와 계속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하였다.

ITV는 Wine-tex 브랜드를 데님 시장에서 데님계의 특징으로 여겨져 왔던 창의력의 자극, 혁신, 그리고 새로운 한계의 길을 여는 것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Textiles (2012. 3. 4)